“맑은 공기 돌려주오” 21일 오후 광주시 서구 금당산 정상에 오른 등산객들이 미세먼지가 뿌옇게 낀 도심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광주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최고 106㎍/㎥(나쁨)을 기록했으며, 오후 1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2시간 뒤인 오후 3시를 기해 해제됐다. /김진수기자 jeans@

사기·폭력 시달려 주민번호 바꾸는 사람들

지난해 5월부터 개정안 시행…광주·전남 15명 첫 변경

전국 810건 접수 304건 인용…재산피해·가정폭력 최다

#1.전남에 거주하는 A씨는 결혼생활 동안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이혼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A씨의 집으로 빈번하게 찾아왔으며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A씨는 집주소를 이전했지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전 남편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2. 광주의 한 회사에 다니는 B씨는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사례다. 어느 날 휴대전화 요금내역서를 받은 B씨는 370만원이 청구됐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부정개통하고 전화 대출 등에 이용한 것이다.

B씨는 “명의도용 피해 등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알 수 없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은 있지만, 마음만은 편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주민 15명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피해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50년 만의 첫 사례다.

2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광주 8명, 전남 7명 등 전국 304명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통과됐다.

위원회에는 지난 11일 기준 변경신청 810건이 접수됐고 496건(61.2%)을 심의했다. 이중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

광주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용 결정된 8건 중 가족폭력이 5건, 재산피해 3건이었고, 전남은 재산피해 5건, 생명신체 피해 1건, 가족폭력 1건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에 따른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 피해 10건(3.3%) 순이었다.

주민번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뤄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됐다. 6건은 기타 피해자 본인 사망, 신청 취하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성별 등)이나 번호 오류의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신청을 할 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판결문, 병원진료기록, 주식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공무원·판사·검사·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 11명(위원장 포함)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린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은 새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변경되지만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은 있다.

홍준형 주민등록변호변경위원장은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

시·도 교육청 있어도 안 쓴 예산 5년간 1조원

광주 4238억·전남 4804억…인건비·예비비 체계적 관리 필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예산을 배정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 예산’이 지난 5년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편성·집행의 계획·적정성을 파악하는 지표인 불용예산이 한해 평균 각 교육청별로 1000억원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2014년 제외) 5년간 불용예산은 시교육청 4238억원, 도교육청 4804억원 등 모두 9042억원이다.

원인별로 보면 광주는 사업예산 집행 후 잔액이 314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급사유 미발생 1028억원 ▲계획변경 취소 47억원 ▲예산절감 13억원 등의 순이다.

도교육청의 집행잔액은 3597억원으로 최고액이었다. 지급사유 미발생(1204억원)·계획변경취소(1억7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 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해선 인건비와 예비비에 대한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항목별 불용예산을 보면 예비비 등이 140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1011억원)·시설비(872억원)·전출금 등(502억원)·기타(421억원) 등의 순이다.

전남은 인건비가 1455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시설비(1429억원)·예비비 등(1204억원)·기타(513억원)·전출금 등(20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해마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양 교육청이 치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진행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각 교육청이 세입 예산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세출 예산을 신청해 불용 예산 발생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채권 확보 및 징수 강화와 사업 취소 시 관련 예산 조정을 위한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 간 협의 강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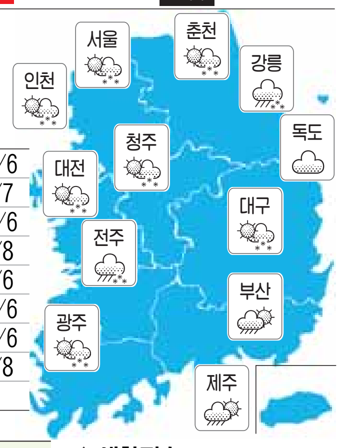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7:38	달뜸	10:36
해짐	17:50	달짐	22:39

눈 내리는 밤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밤부터 눈이 내리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차차흐려져 눈	2/7	보 성	흐림	-1/6
목 포	흐림	1/6	순 천	비온뒤 갬	2/7
여 수	비온뒤 갬	3/7	영 광	비 또는 눈	-1/6
나 주	차차흐려져 눈	0/7	진 도	흐림	2/8
완 도	비온뒤 갬	3/8	전 주	비 또는 눈	0/6
구 례	차차흐려져 눈	-2/6	군 산	차차흐려져 눈	-1/6
강 진	흐림	2/8	남 원	비 또는 눈	-1/6
해 남	흐림	1/8	흑산도	흐림	3/8
장 성	비 또는 눈	-1/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서~북서	0.5~1.5
	먼바다	북동~동	1.0~2.0	서~북서	1.0~2.5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	서~북서	0.5~1.0
	먼바다(동)	북동~동	1.0~2.0	서~북서	1.0~2.5
	먼바다(서)	북동~동	1.5~2.5	서~북서	1.5~2.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23	05:06
	22:54	17:35
여수	05:48	12:17
	18:07	--:--

◇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4/3	-10/-4	-9/-4	-10/0	-8/2	-5/1	-5/1

내일 눈 온 뒤 최강 한파 온다

주말까지 낮에도 영하권

이번 주 광주·전남은 다시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까지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따뜻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지만 밤부터 23일 새벽까지 1~3㎝의 눈 또는 5㎜ 내외의 비가 내린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한파가 찾아오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위는 23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주말인 2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위가 절정에 이르는 25일과 26일 광주의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10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의 최저기온이 영하 4도에서 영하 13도 분포를 보여 올 겨울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특히 25일에는 광주·전남지역의 낮 최고기온을 영하 1도에서 영하 6도로 예상해 낮에도 영하의 매서운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24일에도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2일 광주·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 등급으로 예보했다. 23일에는 대기확산이 원활해지고 전날인 22일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 청정한 대기상태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소방청 ‘먹통 무전기’ 전량 신형 교체

2020년까지 디지털 100%로

소방청이 ‘먹통 무전기와 사투 벌이는 소방대원들’ 보도<**광주일보 1월 17일자 7면**>와 제천 참사에서 논란이 됐던 노후 소방무전기를 2020년까지 전량 신형 무전기로 교체한다.

소방청은 2020년까지 소방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시·도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노후 아날로그 무전기를 보안과 통화품질이 우수한 신형 디지털 무전기로 전량 교체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 기준 신형 디지털 소방무전기 사용 비율은 전체 49% 수준이다. 이를 2018년 68%, 2019년 86%, 2020년에는 10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은 지역별 무선통신 난청 지역 해소를 위해 중계소를 보강하고, 소방서별로 차량용 이동중계기 설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